

토론: FTA 추진현황 및 과제

국민대학교
국제통상학과

성한경

2012. 06

1

1. 요약

- 본 발표는 한국 FTA 추진 현황, 기대효과,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.
- 한국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생산, 소비 모두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시장확대, 경제효율성제고 등을 달성하고자 함.
-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최초로 발효시킨 이후로 세계 최대경제권인 미국, EU와의 FTA를 발효시켰고, 동북아 역내국인 중국,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음.
- 아울러 피해구제제도와 국내보완대책을 함께 운용하고 있음.

2

2. Comments

○ 한미, 한EU FTA 발효는 금융/재정위기 국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함.

- 한국이 지난 금융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견실한 중국의 성장으로 많은 혜택을 본 바 있으나 중국 경제도 최근 다소간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음.
- 한미, 한EU FTA를 통해서 위기국면에서 수출여건 약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, 지나치게 높은 대중의존도를 다소간 낮출 수 있음.
- 또한, 미국과 유럽경제가 회복될 시점에서 시장선점효과가 기대됨.
(만일, 동 FTA 추진이 늦어졌다면 FTA 발효는 불가능했을 것)

○ FTA의 경제적 혜택 외에 한반도 안정화에 기여

- 한미, 한중 FTA를 통해서 세계경제대국들과 상호 경제관계(무역, 투자, 협력)가 심화되면 한반도 안정이 동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일치
-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외교안보 상황의 불안정성(북한 문제, 역내영토 갈등 등)은 동 국가들에 보다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상황을 막으려고 할 것임.

3

2. Comments

○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FTA 추진 필요함.

- FTA에도 불구하고 수입재 시장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비판 존재
- 추가적인 FTA 추진을 통해서 수입재간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이익 극대화 가능

○ FTA 못지 않게 DDA 타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.

- DDA 부진으로 인해서 무역자유화의 노력이 FTA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.
- 비록 FTA가 특정국가/특정분야 개방에 유리하여 상대적으로 협상이 용이한 편이지만, 여전히 전체적 파급효과는 DDA 타결에 미치지 못함.

(DDA 타결 → 실질적 무역장벽 완화+ 자유무역에 대한 글로벌한 컨센서스)

4

2. Comments

○ FTA 추진이 거대경제권 중심에서 신흥국 위주로 옮겨갈 필요

-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마무리 국면이므로 신흥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점임.
(1990년대 중국시장에 대한 선제적 접근으로 큰 혜택을 누리고 있음.)
-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시장확보의 측면에서 관세협상외에 협력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.
(ODA와 FTA의 연계?)

○ FTA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전/사후 조치가 필요함.

- 협상 개시 전 공청회가 건설적인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함.
- FTA 사후대책이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함.
(FTA 비준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것 지양)

5



6